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1월 미 소비 지출 다시 크게 반등했다
- WSJ: 부의장 떠나면서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될지 주목돼
- WSJ: 6월 초쯤 연방 부채 상한선 넘을 듯... 연방세금과 지출 논쟁
- JP모건 보고서: 미국 경제, 글로벌 금융과 정치 지향 전망

[미국 금융]

- WSJ: 시장, 연준의 강한 금리 정책에 순응한다
- Bloomberg: 전설적 투자가 Dalio,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이기고 있고, 양국 충돌은 피할 수 있다”

[뉴저지]

- AXIOS: 뉴저지, 아프리카계 미국인 AP 연구 커리큘럼 늘린다

[부동산]

- CNBC: 이자율 인상에 모기지 수요가 줄었다

[오일]

- WSJ: IEA “중국 재개로 세계 오일 수요 역대 최고치 기록할 듯”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가난하고 바쁜 밀레니얼 세대,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까 By Mark Ellwood
- Bloomberg: 노동자 번아웃, 팬데믹 정점때보다 더 심하다
- USATODAY: 월마트, 7개주에 드론 배송 상용화
- CNBC: 테슬라, 2024년까지 7천5백개 충전소 美 전역에 확대
- TechCrunch: Salesforce 행동주의에 굴복, 엔지니어와 판매 직원들에 엄격한 업무 성과 요구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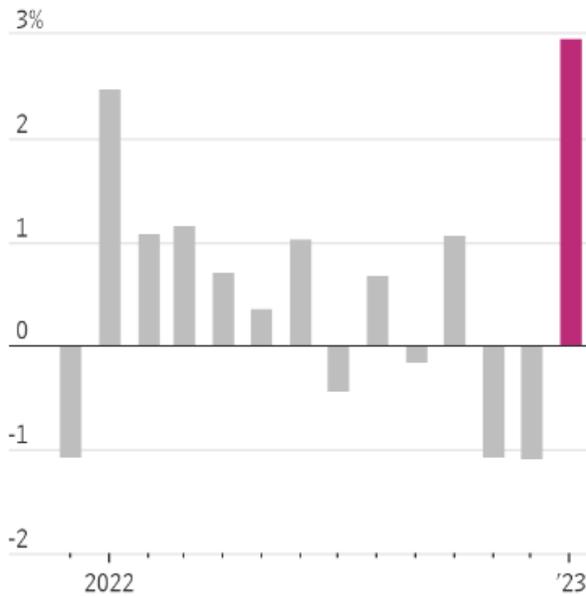
WSJ: U.S. Retail Sales Rebounded Sharply in January

1월 미 소비 지출 다시 크게 반등했다

- 1월에 미 소비자들이 자동차, 가구, 의료, 외식 등을 늘리더니 미 소매 지출이 3% 늘었다. 올해 초부터 경제 성장의 신호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지난달의 계절 조정 소비 증가는 지난 2021년 3월이래 최고치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하락하더니 다시 반등한 것이라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수요일 밝혔다.
- 작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 차용 비용 증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난 후에 1월에는 일자리가 급등했고, 고물가는 약간 식어진 상태다.

- 이처럼 소비 지출이 늘어난 것은 놀랄만한 1월 고용 숫자 증가와 경고한 임금 인상이 연관된 것이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 성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

Retail and food-services sales, change from prior month



Note: Seasonally adjusted
Source: U.S. Census Bureau via St. Louis Fed

WSJ 기사

WSJ: Lael Brainard’s Fed Departure Could Leave Immediate Imprint on Inflation Fight

부의장 떠나면서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될지 주목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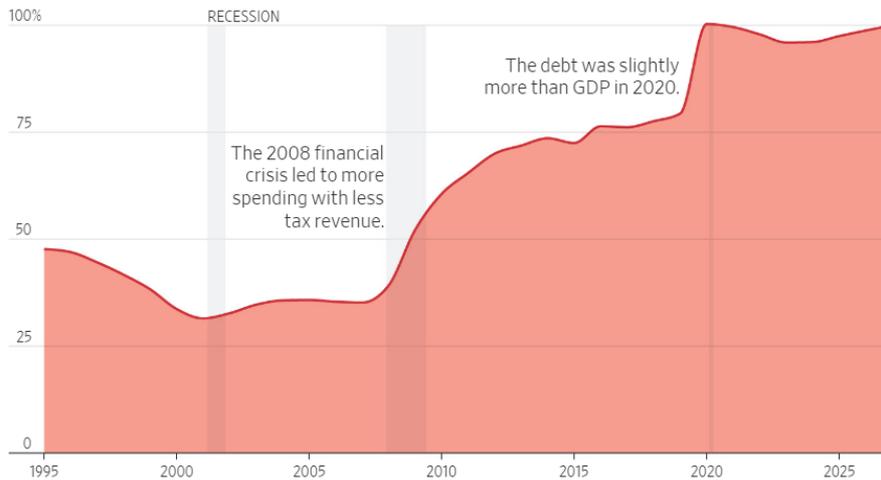
- 연준 부의장이었던 Lael Brainard이 2월 20일 연준에 사표를 내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책임자로 자리를 옮긴다.
- 그녀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찬성하지 않는 온건파였다. 공개적으로는 파월 의장의 일련의 금리 인상 지지를 표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하며, 필요한 수준보다 금리를 더 인상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녀는 팬데믹이 회복되면 고물가도 둔화할 것이라는 비둘기파였다.
- 이제 누가 그녀를 대신해서 비둘기파 정책 입장을 대변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WSJ 기사

WSJ: What Is Pushing the National Debt to Its Limit? 6월 초쯤 연방 부채 상한선 넘을 듯... 연방세금과 지출 논쟁

- 미 연방 부채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이후에 만도 8조 달러 이상 증가했다. 이에 합쳐서 전체 31조 달러가 넘는다고 연방 재무부는 말한다.
-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빠르면 올해 6월초 31조4천억 달러라는 연방부채 상한선을 넘을 상황이다.
- 재정 적자를 메꾸려면 국채를 팔게 된다. 부채는 적자 플러스 부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정부 내 보유 자산을 제외하고 대중이 보유하고 있는 연방 부채는 2020년에 GDP의 100.3%에 달했다.
- 정부는 사회 프로그램과 금융 안정에 더 많이 지출하고, 세율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침체는 세수를 낮추고 있다.
- 지출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방 지출의 3분의 1만 임의 지출로 분류되어 연간 세출법안을 통해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반해 나머지 3분의 2는 의무적인 지출이다. 즉,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소셜 시큐리티다. 소셜 시큐리티 점유율은 2027년에 24%로 늘고, 현재 국방비는 13%이다.

U.S. debt held by the public as a share of gross domestic produ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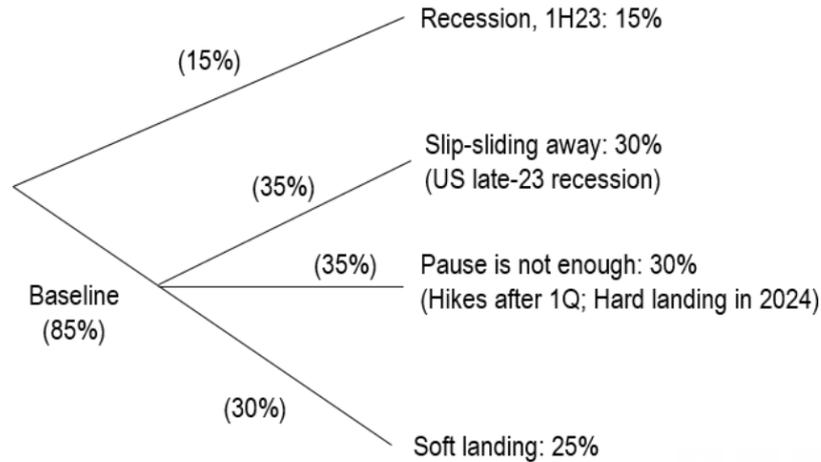
Note: Data after 2021 are projections.
Sourc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deb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recession)

WSJ 기사

JP모건 보고서: 2023 Fixed Income Analyst Society’s Women in Fixed Income Conference
미국 경제, 글로벌 금융과 정치 지향 전망

1. 미 인플레이션은 2024년 말까지 연준 목표 2%를 계속 상회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빨리 둔화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연준은 금리를 연속 올릴 가능성이 있다.

Figure 1: J.P. Morgan Global Economic Research's global outlook scenarios



2. 구조적인 힘과 경기 사이클의 힘이 서로 상충하면서 인플레이가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노동 시장의 다이내믹은 핵심 리스크이다. 1월의 50만 이상의 일자리 확대와 3.4%로 낮아진 실업률을 보면 경제 둔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의 강한 상황이다.

3. 일자리 확대가 성장 둔화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소비 심리가 후퇴하고 기업들이 채용을 중단하는 시점에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4. 강력한 신용시장 랠리 후에 수익 마진이 줄어들면서 펀더멘털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 신용은 유럽 신용이나 차입 금융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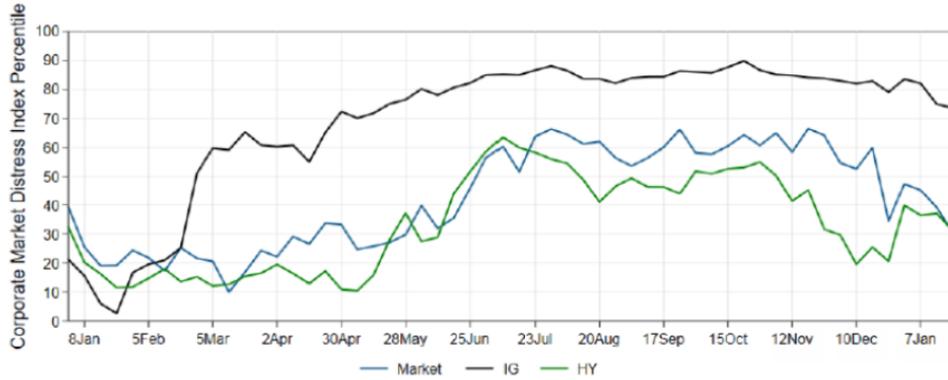
5. 미국의 하이일드 수익률은 차입 금융(**leveraged finance**)보다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지 않지만 이자 보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 중국의 리오프닝은 대부분의 기대 보다 빨랐다. 글로벌 성장에 적극적인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리오프닝은 주로 모든 자산군에 걸쳐 가격이 반영되어 있다.

관광업과 지출은 상승세이고 최근 NBS PMI에 따르면 단기적인 모멘텀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소비 심리는 미국에 비해 약하고, 중국정부의 재정 전환은 미국정부 처럼 대규모 수준이 아니다. 주택 위기 상황속에서 소비 신뢰도 약할 수 있다.

7. 뉴욕연방은행은 최근 Corporate Bond Market Distress Index (CMDI)를 시작했는데 이는 회사채 시장의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는데 현재 역사적인 중간치에 근접한 수준을 보인다.

Figure 10: Market-level CMDI increased, but now trending down



Source: NYFRB

8. 이머징 마켓은 올해 더 나은 해가 될 것이며, 안정적인 미 달러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EM IG 국채의 캐리 인은 현재 약 5%이며, 이중 B 등급 신용은 7%, 단일 B 등급 신용은 10% 이상이다.

9.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계속 높고, 변동 불확실성은 원자재 시장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부채 상한성이 백악관이 싸워야할 핵심 사안이다. 오일 가격 상한제에 대해 러시아가 3월에 50만 bpd 감산하기로 발표해 브렌트 오일은 러시아 발표 이래로 2.5% 상승했다.

10. 비은행 금융기관들(NBFI)은 민간 대출 성장의 특성을 매핑하는 더 큰 규제가 필요하다. 개방형 펀드는 더 나은 유동성 관리 수단을 요구한다.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NBFI) are in need of greater regulation that maps the nature of the growth in private lending, while open-ended funds require better liquidity management too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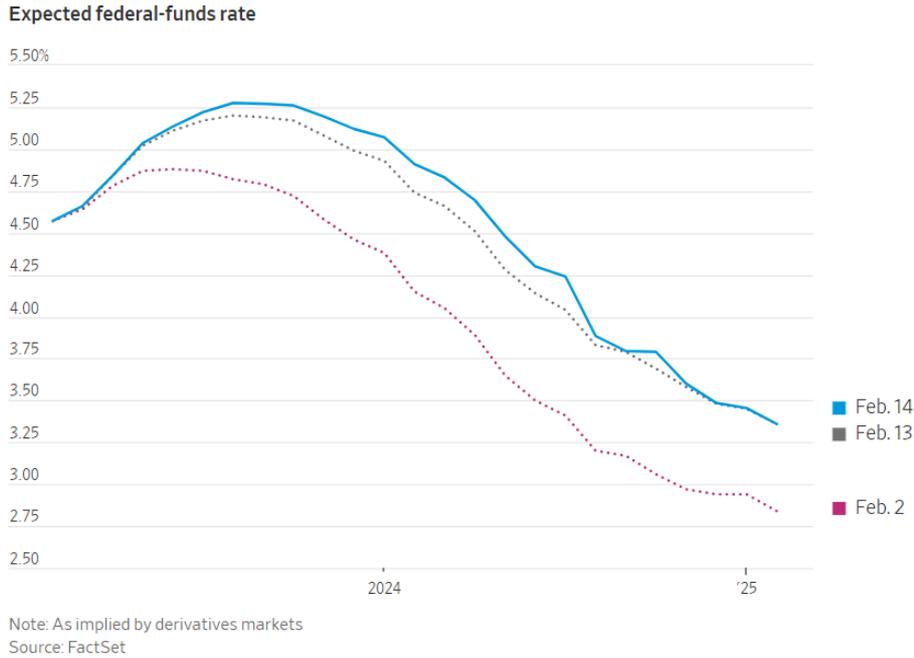
JP모건 보고서 원문

[미국 금융]

WSJ: Markets Come to Grips With the Fed on Interest Rates
시장, 연준의 강한 금리 정책에 순응한다

- 당초 연준은 강한 금리 정책 고수 입장인데 반대 시장은 고물가 둔화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서로 물러서지 않는 치킨 게임이었다.
-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1월에 50만명이 넘는 고용 증가 발표와 더불어 이번주 화요일에 놀랍게 높은 인플레이 수치로 투자자들의 금리 인하 낙관주의는 균열이 생겼다. 결국 연준에 고개를 숙인 셈이다.
- FactSet에 따르면 파생상품 시장은 연준 금리가 5.28%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것. 연준이 올해 여러차례 금리를 내일 것이라는 낙관주의는 착각이라는 것.
- 한마디로 금리는 시장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정점을 찍고, 금리 인하는 예상보다 신속하지 않다는 것이다.

- 한편 회사채 시장의 스트레스 정도를 보여주는 뉴욕연방은행의 1월 지수는 지난 7개월 동안 가장 낮게 나타났다.



WSJ 기사

Bloomberg: Ray Dalio Says China’s Winning Trade War With US, But a Clash Is Avoidable

전설적 투자가 Dalio,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이기고 있고, 양국 충돌은 피할 수 있다”

- 전설적인 투자가이자 헤지펀드 Bridgewater Associates의 설립자인 Ray Dalio는 미중간에 군사적인 충돌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거두고 있다”고 두바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말했다.
- 위안화는 국제 무역에서 보다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싸움에서 진짜 승리자는 양국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미국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내부에 있다고 언급했다. 즉, 인플레이션 악화, 교육, 정치적인 갈등, 리더십, 마약 위기, 빈부 격차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뉴저지]

AXIOS: New Jersey to expand AP African American Studies curriculum
뉴저지, 아프리카계 미국인 AP 연구 커리큘럼 늘린다

- 민주당 소속 뉴저지 주지사인 Phil Murphy는 이같이 밝혔다.

- 그에 따르면 해당 연구 AP(Advanced Placement) 과목은 뉴저지 1개 고등학교에서만 가르치고 있지만 2023-2024 기간에는 26개 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것.
- 한편 미 전역에서는 60개 고교에서 해당 과목이 2년 단위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다.

AXIOS 기사

[부동산]

CNBC: Mortgage demand drops as interest rates bounce higher 이자율 인상에 모기지 수요가 줄었다

- 지난주 전체 모기지 신청 건수가 7.7% 감소했다. 모기지율이 더 인상됐기 때문이다.
- 계약이 이루어진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율은 지난주에 6.39% 올랐다. 전주 대비해서다.
- 주택 구매 재융자 신청건수도 지난주에 13% 떨어졌다. 작년 같은 주에 비교해서는 76%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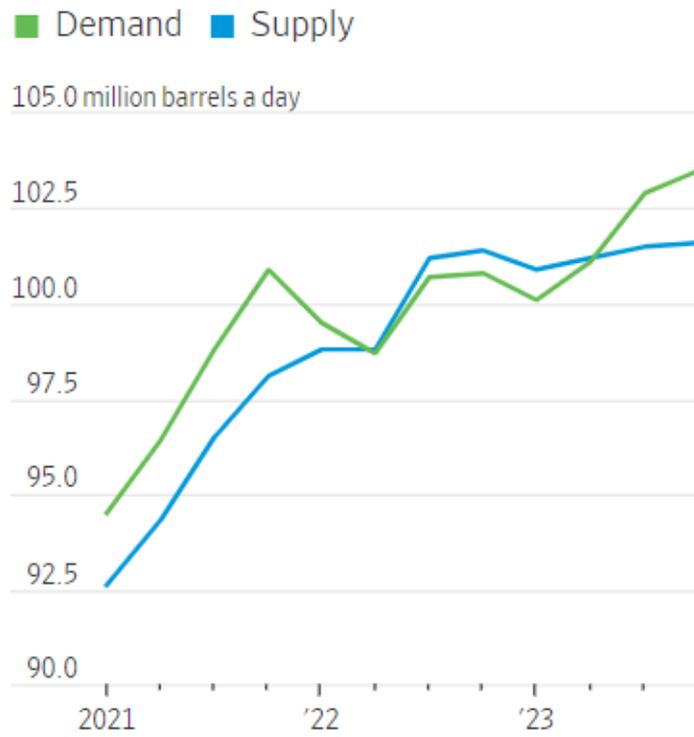
CNBC 기사

[오일]

WSJ: Oil Demand to Hit New Record This Year as China Reopens, IEA Says IEA “중국 재개로 세계 오일 수요 역대 최고치 기록할 듯”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이 코로나19 봉쇄에서 벗어나면서 전세계가 올해 전보다 더 많은 석유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올해 석유 수요가 아시아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하루 약 1억1천1백90만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IEA가 지난달 전망했던 것보다 하루 20만 배럴이 더 많은 수치다.
- 항공 연료의 경우 올해 전 세계 수요가 하루에 약 1백10만 배럴씩 급증하는데 특히 1월은 중국 연휴를 전후로 항공 여행이 증가했었다.
- 그러나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그동안의 제재에 대해 강한 회복력을 보여 IEA가 러시아 생산 전망치를 더 높게 수정했다. 러시아산 원유 판매 가격 상한선, EU의 수입 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량은 1월 하루 30만배럴 증가한 8백20만배럴로 집계됐다.
- 과거 러시아에서 원유공급을 받던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침공 전 하루 3백 90만배럴이었던 수입량을 지난달 하루1백30만배럴로 줄였다. 그 사이 아프리카의 많은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여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늘렸다.

IEA Global Oil Supply, Demand Estimates



Note: Supply figures based on current OPEC+ targets
 Source: IEA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Poor, Busy Millennials Are Doing the Midlife Crisis Differently

가난하고 바쁜 밀레니얼 세대,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까 By Mark Ellwood



Illustration: Eline Van Dam

- 2023년에는 3백60만명의 미국인이 40세가 된다. 그들의 부모님이 40, 50대가 되었을 때 정체성의 변환기를 겪으며 화려한 보트도 사고 해외 여행도 가고 배우자와 갑자기 이혼하던 모습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겠지만 이 세대는 다르게 대처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 St. Louis의 연방준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그들의 자산이 평균 16만2천 달러인데 X세대는 같은 나이에 19만8천달러였다. 대부분 직장을 시작한 첫 10년 동안 전체 임금의 70% 증가를 경험하는데 그 기간이 경기 침체와 겹치면 장기적으로 9% 감소의 확률이 높은 것.
- 은퇴연구센터의 2021년 보고서에는 28~38세의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이 낮았다. 그 외 많은 요인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가난한 중년 밀레니얼 세대를 야기했다.
- 결국 그들은 더 적게 벌고 저축하고 있으며 새 차가 아닌 자전거를 사고 성형 수술 대신 모험적인 취미를 가질 것이다. 평생직장 개념도 사라지고 있는데 2021년 '대퇴직'(Great Resignation)이 화두였을 당시 미국의 월간 퇴사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 "그들은 정말로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텍사스 대학의 역사학자 Steven Mintz가 말했다. 이어서 그는 "25세, 35세, 50세에 해야 할 일을 알려주던 가이드북이 이제는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 한편 밀레니얼 세대에게 중년의 시기가 전혀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고 일부 조연자들은 말한다. 돈이 부족한 삶이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고 '시간'이야말로 그들의 가진 유일한 무기임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Worker Burnout Is Even Worse Than at the Peak of the Pandem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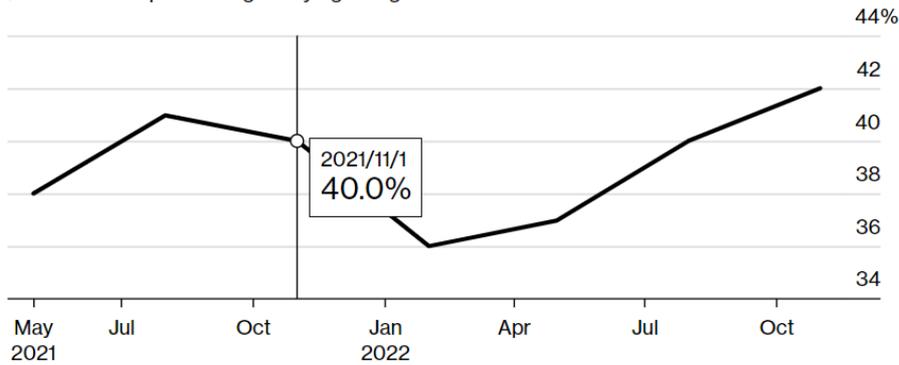
노동자 번아웃, 팬데믹 정점때보다 더 심하다

- 경제 불안, 해고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재택근무에서 사무실출근으로 돌아가는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화이트칼라 직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 이번주 수요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사무직 직원의 40%이상이 번아웃을 겪고 있으며 미국 외 다른 나라에는 지역적인 압박 또한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영국에서는 공공 부문 노조가 부족한 임금 인상에 항의하면서 파업이 국가를 마비시켰다. 프랑스 시민들은 정부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려는 계획에 반대해 거리로 나섰다.
- 특히 사무실출근 정책이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뀌었고 팬데믹 기간동안 습득해야 하는 온라인 기술, 프로그램도 늘어나 더욱 직원들의 피로를 축적하고 있는 것.

Increasing Burnout

Burnout rates among global workers have reached a pandemic-era record

✓ Share of respondents globally agreeing with "I feel burned out at work"



Source: Future Forum

Bloomberg 기사

USATODAY: Walmart offers drone delivery in 7 states: Here's which store locations offer the service

월마트, 7개주에 드론 배송 상용화

- 플로리다주의 월마트 슈퍼센터 인근 고객들은 식료품을 30분 이내 드론으로 배달받을 수 있게 됐다.
- Lakeland 바로 동쪽에 있는 이 매장은 DroneUp, Flytrex, 그리고 Zipline이 최근 출시한 드론 배송 허브를 보유한 7개주 36개 월마트 매장 중 하나다. 포함된 7개주는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아칸소, 버지니아, 유타, 노스캐롤라이나.
- 드론 배달은 반경 0.8마일 이내에만 허용되지만 연방항공청의 허용이 이루어진 후에는 반경 2마일까지 확대될 수 있다. 대상품목은 1만개 이상이며 배송비는 \$3.99이다.

**주별 배송지 리스트는 원문 참조바랍니다

USATODAY 기사

CNBC: Tesla commits to open 7,500 chargers in the U.S. to other electric vehicles by end of 2024

테슬라, 2024년까지 7천5백개 충전소 美 전역에 확대

-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최소 50만 대의 공용 전기차 충전기가 미국 도로에 있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테슬라와 같이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회사는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연방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 이전에는 테슬라의 충전기가 대부분 자사 전기차에만 사용되고 호환되도록 만들어졌다. 이제는 비 테슬라 운전자들도 사용가능한 충전소를 테슬라가 7천5백개 추가할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발표했다.
- 연방 에너지 및 교통부는 어떤 차를 운전하든 충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1. 연방 기금으로 제작된 모든 새로운 충전기는 표준 충전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 CCS 표준은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에서 사용된다.
 2. 연방 기금으로 건설된 새로운 충전소는 지정된 최소 숫자보다 많은 충전기를 보유해야 한다.
 3.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충전기는 일단 설치되면 최소 97%의 시간 동안 가동되어야 한다.
 4.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충전기는 미국에서 조립해야 하며 2024년 7월까지 충전기 부품의 최소 55%(비용으로 측정)도 미국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5. 연방 기금으로 구축된 새로운 충전기는 "Plug and Charge"와 같은 사용자 친화기술처럼 충전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을 자동화한다.

CNBC 기사

TechCrunch: Salesforce yields to activist pressure with harsh new policies for engineers, salespeople

Salesforce, 행동주의에 굴복, 엔지니어와 판매 직원들에 엄격한 업무 성과 요구

- Salesforce는 행동주의 주주들의 입김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새로운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 회사들이 엔지니어 직원들에게 더 엄격한 성과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판매직 직원들에게 사직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엔지니어들에게는 그들이 생성한 코드의 분량에 근거해서 업무 평가를 하도록 했다. 질보다는 분량을 강조한 것.
- 반면에 성과가 약한 판매직 직원들에게는 보다 엄격한 판매 실적 평가를 따르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2개의 선택 중 한 개를 택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

Techcrunch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연준 인사들, 물가 우려에 "예상보다 금리 더 높여야 할 수도"

금융시장, 5.5%까지 인상 가능성 반영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기대만큼 빠르게 진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기준금리를 당초 예상치인 5% 초반대보다 더 높이 올릴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노동시장이 강력한 만큼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더 오래 더 높은 수준에 머무를 위험이 분명히 있다"면서 "(현재 예상보다)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연준 내 '3인자'로 꼽히는 그는 다소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으로 5.0~5.5% 사이가 올바른 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정될 경우 내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준 도표(점도표)에 따르면 19명 가운데 17명이 올해 금리가 5%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5.00~5.25%(중간값 5.1%)로 제시했다.

연준은 이후 지난 1일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 올렸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14일	2/13일	전일대비			2/14일	2/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136.1	4,137.3	-0.03%	국제 금리 10y	미국	3.74%	3.70%	4bp
	유럽	462.40	462.03	0.08%		독일	2.44%	2.37%	7bp
	중국	3,293.3	3,284.2	0.28%		영국	3.52%	3.40%	12bp
	일본	27,603	27,427	0.64%	CDS 5y	한국	41bp	42bp	-1bp
	한국	2,465.6	2,452.7	0.53%		중국	62bp	62bp	0bp
달러지수	달러지수	103.26	103.35	-0.09%	위험 지표	EMBI+	-	385	-
	유로화	1.0738	1.0723	0.14%		VIX	18.91	20.34	-7.03%
환율	엔화	133.16	132.42	-0.56%	WTI유	79.06	80.14	-1.35%	
	위안화	6.8279	6.8183	-0.14%	원자재	구리	409.0	405.8	0.79%
	원화	1,269.4	1,277.3	0.62%		금	1,854.3	1,853.5	0.0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결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